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45호 <미국 언론 비평>

## 미국언론의 한반도관련 보도태도분석

### 기획 취지

미국언론분석팀을 운영중인 코리아연구원은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5회에 걸쳐 미국언론의 한반도관련 보도태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에서 한반도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언론의 부정적 보도와 이에 따른 미국 여론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무관심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6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몫이 있습니다. 언론분석을 통한 미국여론의 현주소 진단이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연대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미국언론에 비친 개성공단 <대표집필 이미혜 협동연구원> (10/24)

[2]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언론의 보도태도

<대표집필 김창수 연구실장> (11/11)

[3] 불량국가 동급최강 북한 <대표집필 정대진 협동연구원> (11/22)

[4] 미국언론에 비친 북한사회 이미지 - 은둔, 비밀, 빈곤

<대표집필 이미혜 협동연구원> (11/29)

[5] 미국인의 북한방문 보도 <대표집필 정보슬 연구원> (12/7)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이사장: 이재정 / 원장: 김연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 미국언론에 비친 개성공단

이미혜  
(한반도 평화포럼 간사)

- I. 한국전쟁 이후 미국언론에 처음 등장한 개성
- II. 개성공단과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
- III. 부정적 보도로 일관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 I. 한국전쟁 이후 미국언론에 처음 등장한 개성

개성이란 지명이 미국언론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한국전쟁 때이다. 1951년 7월 8일자 뉴욕타임즈는 이날부터 시작된 정전 회담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다. 이 기사는 개성에 대해 “38선에서 3마일 아래” 위치한 도시이며 “중세 은둔자 왕국의 수도”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개성의 역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38선이 정치적 분계선이 된 후 개성에서 5마일 떨어진 들판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화”가 있었으며, “선거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려는 UN위원회를 공산주의자들이 돌려보낸 곳이 개성”이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이후 3차례의 점령 교체”가 있었고, “연합군의 엄청난 폭격” 때문에 “60%의 가옥이 파괴되고 대부분의 인구가 피신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가 소개한 2차 대전 이후 개성의 역사이다.

이런 역사를 가진 개성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국전쟁의 정전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정전회담에서 정전을 위한 임시 분계선은 38선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38선 아래쪽에 있고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던 개성에서 공산군은 형식적으로나마 군대를 철수한 상태(공산군측의 행정인력은 남아있었다)에서 정전회담이 진행되었다. 개성은 미국언론에 시작부터 한국전쟁의 정전과 평화와 관련하여 소개되었던 것이다.

## II. 개성공단과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

이러한 미국언론에 비친 개성에 관한 이미지는 2000년 현대가 개성공단개발을 북한과 합의할 때도 그대로 이어져 “서울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한국전쟁 정전회담장소인 판문점이 보이는” 곳에 개성공단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2000년 8월 11일자 뉴욕타임즈).

개성공단의 개발초기에는 개성공단의 의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2006년 7월 18일자 뉴욕타임즈는 부시정부의 북한인권대사인 레이코비츠(Jay Lefkowitz)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시정부는 오랜 유보적 판단 뒤에 개성공단을 비판했다. 개성공단은 미국은 다른 부분에서 북한을 금융적으로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도했다. 통일부의 설명을 빌려 “북한근로자들이 서명을 하고 자신의 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병행하여 보도하였다.

그 뒤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언론의 입장은 언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뉴욕타임즈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에 대해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즈는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주민의)증가한 접촉은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독을 쥐에서 먹이기 위해서는 독 위에 설탕을 발라야 한다. 남북한 주민이 날마다 접촉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북한의 선전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의 말을 보도하였다(2008년 8월 20일자 뉴욕타임즈).

또한 올해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처해있던 때에도 개성공단의 효과를 소개했다. 2013년 5월 4일자의 뉴욕타임즈는 “(개성공단 개발초기) 9년 전에는 오래되고 엄격한 스커트 대신에 패셔너블한 바지를 입고 있는 북한 여성이나, 이제 막 북한에 소개된 휴대폰”이 개성공단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보도하면서 “개성은 남북 모두에 좋은 사업이다”라는 개성공단 남한 근로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개성공단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면서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더 폭넓은 시장경제개혁을 위한 이행모델”이 되지 못했다고 보도하였다(2013년 4월 3일자 워싱턴포스트)

이와 같이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도 개성공단을 의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와 달리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의 의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개성공단 일시 폐쇄 후 재개하도록 한 남북한 합의에 대해서도 2013년 7월 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 재개는 평양에 구명줄을 던진 것”이며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햇볕정책의 최악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 Ⅲ.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노력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저널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거 (Bruce Klingner) 연구위원의 외부기고를 통해 “개성실험은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개성공단을 제재의 한 수단으로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옵션을 남한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13년 8월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이 2013년 4월 9일자에서 개성공단은 “가난한 독재국가인 북한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급하며,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을 북한에게 제공한다고 보도하였다. “개성이 임금직불을 규정한 한국의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개성공단에는 충성심에 의심이 없는 특별히 북한정부에 의해 선발된 사람만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태도는 한국 내 보수신문의 보도태도와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 재개합의를 잘못된 것이라고 맹비난하던 바로 그날인 2013년 7월 8일에 조선일보 “개성공단을 경험 성공 모델로 만들 새 원칙 세우라”라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에 앞서 북한이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을 자의적으로 짓밟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 남북이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다면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지난 5년간의 막히고 뒤틀렸던 남북 관계의 틀을 새로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개성공단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는 개성공단의 개발로 인해 가져왔던 북한의 변화(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 변화)에 대해 외면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도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에는 충성심에 의심이 없는 특별히 북한정부에 의해 선발된 사람만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개성공단 북한근로자가 현재 5만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개성시내 인구가 20만명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에 충성심 높은 사람만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서 설명한 브루스 클리너(Bruce Klingner)의 외부기고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거부나 잦은 생산중단 등의 이유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은 진보정권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진보정권에서 약속한 근로자숙소 건설 등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발전이 어려웠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투자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더 발전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실패한 실험이 아니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개성공단이 없어진다면 남북간에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남북간 긴장 고조에 대해 남한은 우려가 크에도 미국의 일부 보수층은 그것은 남의 일인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3/10/24)

##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언론의 보도태도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 I. 맨하탄 없는 강성대국?
- II. 미국 본토 위협에 대한 불안감
- III.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관대한 미국언론
- IV. 중국에 대한 기대 접기 시작

### I. 맨하탄 없는 강성대국?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인들에게는 안보위협이다. 그래서 지난 1월 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16년 경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미국의 언론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통상적인 훈련으로만 바라본다. 이렇게 두 종류의 미사일에 대한 미국언론의 대응이 다른 것은 미국본토에 대한 도달 여부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미국언론은 미국본토에 도달하는 위협에 민감하다.

지난 2월초에 유튜브에는 북한의 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올린 동영상이 나돌았다. 한 소년이 꿈속에서 우주여행을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언론은 이 동영상을 화제로 삼았다. 이 동영상의 뒷부분에는 성조기와 함께 맨하탄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나온다. “아메리카 어디선가 검은 연기도 보입니다”라는 자막에 다음에 “아마 강권과 전횡, 침략전쟁만을 일삼던 악의 소굴이 제가 지른 불에 타는 모양입니다”라는 한글자막이 이어진다. 미국의 주요 신문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는 2월 5일자에서 이 동영상을 내용을 전했다. 동영상도 첨부하고 기사에는 한글자막을 영어로 번역해서 실었다.

이 동영상에 대한 미국언론의 태도는 북한에 대한 불쾌감이다. 북한에 의한 위협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인공위성에 빗대어 “북한은 맨하탄 없는 광명세상을 꿈꾼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젊은 북한 남성이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파괴하는 꿈을 꾸는 황당한 영상이 북한의 핵실험 위협 속에 나왔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뉴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잿더미가 된 자극적인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전략군 소위원회 마이클 터너 위원장은 ‘뉴욕 폭격 비디오’라고 칭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파문속에서 북한은 또다시 2월 19일에 ‘미국의 덕이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올렸다.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군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연출됐다.

북한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것은 미국의 시민사회를 상대로 한 일종의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말하는 ‘인민외교’이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북한이 미국인을 비롯하여 세계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 능력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세계와 공감하지 못한 채 자족적인 체제선전에 몰두하는 북한의 행위는 미국 여론이 북한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사실 이 동영상 속의 불타는 맨하탄 장면은 북한이 맨하탄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연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언제든지 맨하탄을 불바다로 만드는 세력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 II. 미국 본토 위협에 대한 불안감

미국 언론은 어찌보면 단순한 사건으로 무시해 버릴만한 이 동영상 게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불편한 심사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발사가 아닌 중거리탄도 미사일 자체에 대한 발사 실험을 한 것은 2006년 7월이다. 대포동 2호로 알려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발사되었는데 40초만에 추락했다. 이 때문에 대포동 2호 발사는 실패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당국은 예외였다. 당시 실험이 미사일 발사를 원격조정하는 지휘통제시스템 실험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원격조정 발사를 실험한 것은 지휘시스템을 미사일 발사대에서 멀리 떨어뜨려 미사일 발사 후에 있을 수 있는 보복공격에서 피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지난 4월 중순에도 열흘 이상 미국 언론을 달궜다. 4월달에는 중거리 미사일로 알려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여부에 많은 나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던 때였다.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인 무사단 발사를 통해서 이동식 발사, 미사일의 비행거리, 타격 정밀도 등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이 시험이 성공하면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작 미국언론의 관심은 엉뚱한 데로 쏠렸다.

논란은 4월 11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더그 램본(공화·콜로라도) 의원이 “북한이 현재 탄도 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방정보국(DIA) 보고서 한 대목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부 미국언론들은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고 보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16일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얹을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램본 의원이 이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다. 오바마 정부가 미사일방어(MD) 예산을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논란은 엉뚱하게 확산되어 북한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미국의회에서 벌어진 북한 미사일에 논란에 대한 미국언론보도에 미국인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보도한 4월 11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에는 1,000여개의 댓글이 달리고, 619개의 페이스북 추천과 174개의 리트윗이 있었다. “북한이 가짜 대량과괴무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북한을 공격할 수 있으나, 북한이 정말 대량과괴무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부시 전 대통령이 클린턴의 포용정책을 부정한 결과라는 댓글에 대한 지지가 그 다음 순이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경제를 망치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키워서 미국을 ‘아마겟돈’에 빠지게 했으며 부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도 눈에 띠었다.

### III.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관대한 미국언론

북한은 지난 5월 중순에 3일 연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2013.5.21.) ‘비교적 일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의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연간 몇차례씩 사거리 160킬로미터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한국정부가 필요할 때만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가증되는 북침 핵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보유한 수백기의단거리 미사일은 서울과 그밖에 한국의 인구밀집지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사일을 실험한다고해도 그 사정거리가 미국본토나 서울이냐에 따라서 미국언론의 보도는 이처럼 현저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보도하거나 한국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본토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란스럽게 보도하는 것과는 분명 비교가 되는 보도태도이다.

북한의 미사일에 미사일 그 자체보다는 핵폭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인프라를 마비시킨다는 전자기파(EMP) 공격을 염려하는 보도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 26일자에서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과 피터 프라이 국가안보테스크포스 사무국장의 공동기고문을 실었다.

이들은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두를 소형화시켜서 ICBM에 장착하는 것은 ICBM에 비해 훨씬 쉽다는 것에서 이들의 염려는 시작된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개의 핵탄두를 운반하는 단 한 개의 ICBM’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 의회 전자기파위원회(EMPC)와 미 의회 전략태세위원회(SPC)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본토 상공에서 핵무기 1개가 폭발하면 엄청난 전자기파가 생성된다. 전자기파(EMP) 공격 한번으로, 문명사회 및 3억 미국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송전망과, 통신, 교통, 금융, 식품, 상하수도 등 송전망에 의존하는 기타 인프라는 와해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자기파(EMP) 공격이 북한이 미국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결론은 북한의 ICBM 시설에 대한 정밀공격과 MD 강화이다. 북한의 전자기파 공격을 강조하는 이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북한의 전자기파 공격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언론은 워싱턴 타임즈이다. 통일교 계열의 워싱턴 타임즈는 워싱턴포스트와는 달리 영향력이 매우 한정적인 신문이다. 워싱턴 타임즈는 북한이 2012년에 위성발사를 성공한 것에 주목한다. 북한이 약 500키로미터 고도의 극궤도를 도는 핵탄두 탑재위성을 미국 영토 상공에서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가 미국 전과교란을 일으키는 이상적인 전자기파 공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 타임즈의 시각이다.

#### IV. 중국에 대한 기대 접기 시작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일부 언론이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MD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컸다. 대부분의 언론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했다. 뉴욕타임즈(5.23)나 워싱턴 포스트(5.23)는 최룡해 총참모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중국이 북한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상하이 푸단대 한국학연구소의 차이 지앤 부소장의 말을 인용해서 최룡해가 시진핑을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

미국 언론들이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던 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으며, 지난 5월초에는 중국 국영은행이 북한의 주요 외환거래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끊은 것과 같은 조치 때문이다. 또 중국의 학자들이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최룡해의 방중으로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한반도에 새로운 외교가 펼쳐질 가능성까지 기대했다. (5.23) 핵실험을 한 북한을 꾸짖기 위한 것이 최룡해의 중국방문을 허락한 것이 중국의 목적이라고 보도한 국내 일부 언론들과 비슷한 논조였다.

하지만 미국언론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은 6월 한중정상회담 이후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이징과 서울이 대북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6.28) 미국의 국가전략에 밝은 조셉나이 하바드대 석좌교수가 북한의 외교를 ‘약자의 위력’(power of weakness)이라고 이름 지었다. 조셉나이가 중국의 외교는 위력을 가진 북한의 약자외교에 납치되었다는 칼럼을 기고(Project Syndicate 2013.7.12.)한 후부터 미국언론의 중국에 대한 과잉된 기대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다. 더 나아가 뉴욕타임즈는(11.7)는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에반스 리비어 전 주한미대사의 말을 인용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미국 언론의 위기의식은 아직도 여전하다. 다만 그 해결책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지고 있다.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MD 강화라는 강경책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보스워스 전주한미대사와 로버트 갈루치 전 동아태 차관보가 뉴욕타임즈(10.27) 기고를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주장한 것은 큰 반향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화는 강경책이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또다른 하나



의 대안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대치를 낮춘 중국역할론, 강경책, 대화 이 세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 언론은 미국정부에 어떤 주문을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2013/11/11)

## 불량국가 동급최강 북한

정대진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대표  
코리아연구원 협동 연구원)

- I. 미국이 지목하는 불량국가들
- II. 미국의 시리아, 이란 정책에 이용되는 북한
- III. 한반도 평화와 북미간 충돌 방지

### I. 미국이 지목하는 불량국가들

“태권V와 마징가Z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30대 이상 한국인이라면 들어봤음직한 추억의 논쟁거리 중 하나다. 답이 없는 논쟁거리이고 현실에서 판가름 날 리 없는 만화 같은 질문일 뿐이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언론도 이와 같이 판가름하기 힘든 주제를 놓고 기사를 종종 쓴다. ‘불량국가 중 누가 제일 나쁜가?’

‘불량국가’라는 딱지 자체가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만 붙는 수식어이다. 불량국가라면 모두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위협이 되는 것이지 누가 더 나쁘다고 경중을 따지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세계정세의 흐름에 따라 불량국가 중 동급최강을 지목하는 미국 언론과 미국인들의 시선은 존재해왔다.

10년 전만 해도 단연 이라크가 불량국가 동급최강이었다. 테러와의 전쟁 당사국이자 사담 후세인의 철권통치가 이어지던 나라였다. 정보조작으로 판명나기는 했지만 대량살상무기를 지닌 아주 위험한 나라였다.

2001년 9·11 테러 4개월 뒤에 발표된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나온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 중 단연 선두도 역시 이라크였다. 원래 이라크만 연두교서 초안에 언급됐으나 수정과정에서 이란과 북한이 추가됐다는 전언도 있다.

그 후 후세인이 제거되고 미국에서 언급하는 불량국가 중 최고의 자리는 이라크에서 북한으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했다. 북미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차곡차곡 핵능력을 강화해나간 북한은 10여년 사이에 이라크와 이란을 제치고 불량국가 중 동급최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 II. 미국의 시리아, 이란 정책에 이용되는 북한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문제가 불거졌을 때 <뉴욕타임스>는 “화학무기 사용금지 협정은 인류의 도덕적 의무의 한 표현”이라며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시리아와 북한, 이집트, 앙골라, 남수단을 일일이 열거하며 비판했다(2013년9월3일자, “Antigone in Damascus”)

이어 같은 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석한 미 의회의 시리아 공습 관련 청문회 소식을 보도하며 두 장관의 말을 빌려 북한을 시리아와 동급의 국가로 취급했다. 나아가 시리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해 오판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2013년 9월3일자, Officials Make Case for Strike Before Senate Panel).

시리아 공습에 대한 청문회에서 미국의 선제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미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2013년9월4일자, The Stakes in Congress). 시리아 문제 자체는 시리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 전반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란과의 핵협상 문제를 다룰 때도 북한 핵과 같은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목소리도 높다. <워싱턴포스트>는 11월7일 보도에서 현재 이란과의 핵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웬디 셔먼 협상 대표가 과거 북한과의 가짜 핵 협상(bogus arrangements)에도 참가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란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그들의 속임수 핵 폐기 움직임에 장단을 맞추다 북한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훈수를 두었다(Obama to allow Iran to kee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핵 협상 실패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최근의 보도 이전에 올해 상반기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에 미국이 나설 것을 주문한 미국 언론의 보도에서도 북한은 핵 위협 국가로 이란도 북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기사로 등장하곤 했다.

<뉴욕타임스>는 8월9일자 보도에서 미 당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할 때 북한의 사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즉, 북한이 우라늄 개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개발 프로그램까지 옅어간 사례를 염두에 두고 미국은 이란이 플루토늄 개발도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Iran's Plan B for the Bomb).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서 다른 불량국가들이 절대로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되는 동급최강의 불량국가로 미국 언론보도에서는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 III. 한반도 평화와 북미간 충돌 방지

이밖에 폐쇄국가나 독재, 인권탄압 등 불량국가의 특성을 지닌 국가를 지칭할 때 미국 언론은 북한을 인용하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9월8일 아프리카의 독재와 인권탄압 소식을 전하면서 이사이아스(Isaia) 에리트리아 대통령이 서방원조를 차단하고, 반대자를 지하 컨테이너에 가둔다고 하면서 에리트리아를 아프리카의 북한(North Korea of Africa)으로 지칭했다(The Global Elite's Favorite Strongman).

미국 언론 보도에서 북한은 빠질 수 없는 불량국가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감축을 해서 핵무기가 결코 핵심이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자는 주장(뉴욕타임스, 6월7일, Letting Go of Our Nukes)이나 핵문제와 같은 사안에 있어 그 누구도 확실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때는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뉴욕타임스, 5월16일, When to Talk to Monsters)는 권고가 미국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아울러 불량국가 동급최강인 북한을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도 생각해볼 수 없을 수 없다. 한반도의 전면적인 긴장과 충돌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전쟁의 피해를 남길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에 전달하여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의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은 동급 없는 세계최강 미국과 불량국가 동급최강 북한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관전하듯이 바라볼 상황은 아닌 것이다. (2013/11/18)

## 미국언론에 비친 북한 사회 이미지 - 은둔, 비밀 빈곤

이미혜  
(코리아연구원 협동 연구원)

- I. 은둔의 나라(Hermit Kingdom), 북한
- II. 북한의 스마트폰
- III. 북한의 워터파크와 미국언론의 다양한 시각

### I. 은둔의 나라(Hermit Kingdom), 북한

19세기말 목사이자 동양학자였던 미국인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가 은둔의 나라 코리아(The Hermit Nation Corea)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이 책의 제목에 빗대어 한국을 은둔의 나라로 불리졌다. 책이 발간될 당시 조선은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은둔의 나라는 외부의 접촉을 거부한 폐쇄적인 나라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단어가 1세기도 더 지나서 미국 언론에서 북한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언론에 비친 북한은 고립되고(isolated nation), 비밀스러운(secretive)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퇴보된(the most backward place on the planet) 나라이다. 북한은 또한 빈곤한 국가이다. 빈곤(poverty), 굶주림(starvation), 기아(famine), 영양실조(malnutrition) 등의 단어들은 '북한(North Korea)'과 함께 등장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고립되어 있고 빈곤한 북한이 8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아리랑을 자체 생산한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워싱턴 포스트는 8월 14일 “북한, 이노베이션 국가?(North Korea, innovation powerhous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이노베이션 르네상스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이 작은 핸드폰이 북한의 경제적 회생(economical revival)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다소 긍정적인 보도를 했다.

## II. 북한의 스마트폰

AP통신의 경우는 8월 16일 기사 “자체 생산한 북한의 스마트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Skepticism as N Korea shows home-grown smartphone)”를 통해, 한국과 외국에서 북한의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에 대한 보도를 했다.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다는 스마트폰은 아마도(probably)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월 11일자 조선중앙통신의 기사에 수록된 사진상 스마트폰이 생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핸드폰 회사의 김문구 매니저의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사진으로만 보아서는 북한이 스마트폰을 자체 생산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공장이 너무 깨끗해서 기계들을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기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강효제 연구교수의 ”기술부족으로 북한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북한이 부품을 어떻게 구하는지 의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다른 의견도 함께 실었다.

그러나 CNN(8.13)은 북한의 스마트폰 자체 생산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위주로 보도했다. AP통신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인터뷰한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의 언급만을 인용하는데 그쳤다.

김문구 매니저와 마틴 윌리엄스는 똑같이 북한 스마트폰의 자체 생산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김문구 매니저는 사진 상 깨끗한 공장모습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그런데 마틴 윌리엄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장이 깨끗해서도 아니고 사진을 보니 ”완성된 스마트폰을 검사하고 테스트는 하지만 생산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가 회의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이다. 그 어디에도 그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아마도(probably)’만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 III. 북한의 워터파크와 미국언론의 다양한 시각

북한의 대형 물놀이 시설에도 미국언론은 호기심을 보낸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은 우리가 본 가장 끔찍한 워터파크를 지었다(North Korea just built the

creepiest water park you've ever seen)"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2013.10.18.) 워터파크 이외에 지난해 개장한 돌고래 수족관과 공사 중인 스키 리조트 등을 함께 언급했다. 주민들은 전기와 식량 없이 살아가는 와중에 분명히 낭비적(obviously wasteful extravagances)이고 이해되지 않는다(absurd)고 보도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각은 ABC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6월 18일 “북한은 굶주리지만 엘리트는 고급 음식점을 연다(North Korea Starving, But Elite Open Luxury Restaurant)”는 제목으로 600만명이 영양실조와 기근에 노출되어 있지만 북한의 수도에 고급 음식점이 등장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이다.

물론 모든 미국언론이 북한에게 비판적인 평가만을 하지는 않는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International Business Times)는 10월 23일, 북한 워터파크와 리조트, 스키장 같은 시설들에 비판적인 시선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 시설이 저평가(underestimate)된 것일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관광산업은 많지 않은 투자로도 북한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워터파크나 유원지 같은 시설이 식량부족이나 경제적 빈곤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한 분명한 걸음(tangible steps)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고급음식점이 생기고 워터파크가 개장되며 스키장이 지어지는 것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북한 주민 상당수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는 있다. 아직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이 태반인데 일부의 상위계층을 위해 낭비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이런 시설들이 북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결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 돈이 결국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고 주민들의 빈곤한 삶이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사실적인 소개,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북한에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보도는 유독 엄격하다. 북한과 비슷한 경제수준의 미얀마에, 방글라데시에 고급 레스토랑과 워터파크가 생겼다고 해서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을 나몰라라 한다고 비난할 것인가. (2013/11/29)

